

“파사현정의 가르침 영원하리라”

문수 스님 추모 다례제 및 부도탑 제막식... 참가자들 유지 계승 다짐



①, ② 문수 스님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다례제에는 각계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③문수 스님의 추모비에는 생애와 소신공양 당시 남긴 유언 등이 기록됐다.



신라불교 공헌한 이차돈 성자 같이 문수종사 순교정신 영원히 전하는 뜻 황룡이 휘몰아칠줄 그 누가 알겠나.

진관 스님이 4대강 사업 철회와 서민 정치 실현을 촉구하며 소신공양 했던 문수 스님을 추모하며 비석에 남긴 시다. 진관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이차돈 순교에 비유했다.

문수 스님의 추모 다례 및 부도탑 제막식이 군위 지보사(주지 원범)에서 5월 31일 열렸다. 5월 31일은 스님이 소신공양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진관 스님은 비문에서 “조계종 승려가 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소신공양으로 통렬히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문수종사의 파사현정의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승하고자 한다. 문수종사가 살신 정신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소신공양했기에 그의 정신을 기리 후대에 전하기 위해 도반들이 비를 세운다”라고 적었다.

다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원정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산·혜경 스님,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과 신도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부도탑은 중생을 늘 걱정하던 스님의 마음을 담아 범종 형태로 제작됐다. 부도탑 옆에 마련된 비석에는 문수 스님의 생애와 소신공양 당시 남긴 유언 등이 기록됐다. 비문은 진관 스님이 문안을

작성했다.

지보사가 위치한 군위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남긴 후 열반에 드신 곳이다. 스님의 후학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인각사에 보각국사비를 세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1년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문수 스님의 부도탑이 마련된 것이다.

추모 다례에서는 각 계의 추모사와 문수 스님을 그리워하는 도반들의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혜경 스님은 추모사에서 “문수 스님은 생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행복한

중생 향한 마음 컸던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년 추모행사 맞아 범종 형태 부도탑·탑비 세워져

세상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사회 곳곳에 스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혜경 스님은 아직 문수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혜경 스님은 “중생들은 여전히 욕심으로 지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 문수 스님은 부도탑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

른다. 하지만 부도탑에 우리의 뜻을 담았으니 부디 스님의 원력이 생명의 원천으로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박희택 불교아카데미원장이 추모사를 전했다.

박 원장은 “문수 스님의 진신은 마침내 이 탐으로 우리 앞에 현전했다. 어떠한 고향에도 불타지 않고 스님을 정념하는 대중들 곁에 언제까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한국 불교가 새로운 사회화에 나서야 한다. 생명 죽임을 생명 살림으로 전환하는 불사를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사 이후에는 도반을 대표해 총무원 재무국장 각운 스님이 추모의 뜻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각운 스님은 “자네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 자네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네. 아직도 자네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네의 뜻을 잊지 않겠네. 그 뜻을 발전시키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추모식과 부도탑 제막식 후에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문수 스님 영전에 꽃을 헌화하며 스님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제막식에 참가한 이현숙(73)씨는 “해인사 신도였을 때 스님을 처음 보았다. 내 가슴 속에 스님은 나라를 구한 스승으로 남아 있다. 불자로서 스님의 고통을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한참 살아갈 나이에...”

해인사 시절 함께했던 이현숙 보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은 부처님 정신 그대로입니다. 한참 살아야 할 나이에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73) 보살은 문수 스님의 추모 다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부도탑 제막식이 끝나고 스님에게 꽃을 헌화하면서 이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씨는 문수 스님의 다비식 때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 해 불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 보살은 문수 스님이 해인사에 있던 시절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씨는 당시 스님의 총기 넘치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한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불보살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해인사에서 자주 뵈면서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안 계시다니 너무 슬프네요. 그 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던 일이 있는데 그 말씀 무엇이었는데 이젠 여쭙 볼 수도 없네요.”

이현숙 보살은 문수 스님이 1994년 종단 사태 때 많이 답답해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스님은 늘 자신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문수 스님의 고통과 고민을 어머니처럼 보듬어주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에게 스님은 나라를 구한 큰 스승으로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스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뜻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문수 스님은 누구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빛난 수좌

문수 스님은 1986년 월정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88년 해인사가대학을 수학한 뒤, 1994년에 중앙승가대에 입학했다. 승가대에서 스님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내 문제 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수 스님은 1994년 종단 사태 때 총무원이 경찰에 포위되자 도반들의 안위가 걱정돼 포위망을 뚫고 총무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20여년 간 재방 선원을 운수하며 용맹 정진하는 수좌로서의 삶에 충신했다. 스님은 자신의 수행에 철저하면서도 늘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적 요청에 누구보다 앞선 수행자였다. 2006년 이후 지보사에 있던 시절에는 3년 동안 세심당에서 하루 1종식만을 하며 두문불출 수행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사직리 낙동강 제방에서 4대강 공사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 서민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생전의 스님의 세간은 통장 하나 없이 낡은 서랍장과 신문이 전부일 정도로 청빈한 삶의 표본이었다.

박기범 기자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이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팔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담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승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내인파이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